

제33회 한일·일한 공동성명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과거를 넘는 미래로”

제33회 한일·일한 포럼은 2025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포럼은 지난해 도쿄에서 열린 제32회 포럼의 특별 세션인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향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포럼 의장 성명에서는 “한일 양국은 다수의 공동 이익과 더불어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과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양국이 공동의 미래를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이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한일 관계가 지닌 전략적 의의를 깊이 되새기고, 공통의 미래를 향해가는 지속가능한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우리의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일·일한 포럼은 1993년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창설된 이래 다양한 제언을 발표하며 양국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실질적 협력 촉진에 기여하며, 한일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김포-하네다 직항 노선 개설’, 한국의 ‘일본 문화개방’ 등은 본 포럼에서 논의되어 양국 정부에 제안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최근에는 올해 6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도입된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가 양국 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국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난 해 본 포럼에서의 논의의 결실로서, 본 포럼에서는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

국교정상화 60주년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전환기에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하며 공통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일 양국의 정치 정세와 한일관계, ▲트럼프 2.0 시대의 동북아 정세와 한일협력, ▲한일주니어포럼, ▲글로벌 경제 재편과 한일 경제 협력의 미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주요 단체 제언 - 과거를 넘어 미래로의 5개

세션을 통해 한일관계가 나아가야 할 공통의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제33회 한일·일한 포럼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전을 재확인하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한일 양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간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의 틀에서도 협력의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한미일, 한일중,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 협의체에서 한일 간 대화와 협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한일 양국은 최근 확대되는 신보호주의, 무역 마찰, 공급망 불안정성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자유 무역 질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RCEP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의 CPTPP 가입 및 한일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국제 경제 규범의 논의, 형성, 채택 및 확산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한일 양국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과제 해결과 첨단산업 및 기술발전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식과 인재 교류의 협력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급망, 에너지, 탄소중립, 환경, AI, 바이오, 통신, 스타트업, 지방재생, 노동, 재난 등은 한일 협력을 확대시킬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그러한 이유로, 한·일 포괄적 협력 협정 등의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한일 간 문화·인적 교류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 세대의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류를 위한 ‘한일판 에라스무스 문두스 계획’, 장기적이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협력 증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위한 ‘한일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의 도입

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올해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된 ‘한일 전용 입국 심사대’와 같이 양국 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활히 하는 조치는 국민 간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에 있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안이므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영구화되길 바란다.

다섯째, 한일 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국민과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 행동을 통해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양국 국민 간 상호 불신과 오해가 한일 관계 악화의 근본적 요인임을 직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한일·일한 포럼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중요한 전환기에서 민간의 대화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공감을 증진한다는 창설 정신을 계승하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한일 협력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을 확고히 다짐하는 바이다.

2025년 8월 20일

한일·일한포럼 참가자를 대표하여

한국측 의장 유명환



일본측 의장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측 의장대리 나가미네 야스마사

